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㉑ 품다삼매(品茶三昧)

은거 문인, 茶로 삼매에 들다



심주의 동장원책 중에서 졸수암 전경. 심주의 산수화와 글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차를 즐기는 경지를 '품다삼매(品茶三昧)'라고 말한 사람은 명대 오문화파(吳門畵派)를 개창한 심주(沈周, 1427~1509)이다. 종래에 차를 다리는 경지를 '전다삼매(煎茶三昧)'나 '팽다삼매(烹茶三昧)' '점다삼매(點茶三昧)' 등으로 표현하였고, 조선 후기 김정희(1786~1856)가 명선(茗禪), 다삼매(茶三昧)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다. 그런데 명대 대표적인 산림에 은거한 문인 심주(沈周)는 다사(茶事)의 고상한 품격을 '품다삼매(品茶三昧)'라 말했으니 이는 그가 은거한 문인으로 차의 심오한 경지를 경험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서·화에 밝았던 문인이었다. 원대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의 화풍에 몰두했고, 만년엔 오진(吳鎭, 1280~1354)의 화풍을 배워, 산수화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도, 그를 통해 명대 은거 문인의 차에 대한 취향과 격조를 살펴 볼 수 있는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한편 그가 강남의 문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선대들도 서화에 능했던 가문(家門)이었지만,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은 채 시와 그림, 글씨, 차를 즐기는 삶으로 일관했다. 그러므로 동시대 인물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그를 "산 중에 신선(山中神仙)"이라 칭송했던 것이다.

16세기 초까지 소주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던 심주는 문징명·당인(唐寅, 1470~1523)·구영(仇英, 1482~1559) 등과 명사가(明四家)로 자리를 나란히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산림에 은거했던 연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치세(治世)와 관련이 깊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나라 건국 초기 황제 주원장(1328~1398)이 서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황실로 모여들었지만, 왕권이 강화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에 염증을 느낀 문인, 화가들은 산림에 은둔하는 풍조가 생겼다.

한때 주원장은 명나라 건국에 동조하지 않았던 소주 지역뿐 아니라 강남 지역의 문인들을 배척하여 과거나 등용을 하지 않는 정책을 폈던 것도

明 건국 주원장, 소주·강남 지역 문인 배척해
해당 지역 문인들 은거하며 안빈낙도 삶 살아

강남 문인들이 산림에 은거하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시대 환경은 심주에 영향을 미쳐, 그 또한 산림에 은거하며 시·서·화·차에 몰두할 뿐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아무튼 15~16세기 초엽에는 은거 문인들이 차를 즐기는 아취를 시문과 그림에 담았기에 이들의 소박한 삶 속에 차가 주는 위안을 만끽했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심주가 품다삼매를 언급한 것은 〈발다록(跋茶錄)〉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초해 선생은 산림에 사는 진실하고도 참된 군자이다. 평소 높은 벼슬아치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날마다 청산을 굽어보고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한 잔의 차로 반평생을 보냈으니 실제 품다삼매를 얻어 (차를) 보좌로 두었던 것이다. (이런 경지는)육우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초해 선생은 차의 바른 역사 기록자(동호)라 하여도 좋으리라. (樵海先生 眞隱君子也 平日不知朱門爲何物 日偃仰於靑山白雲堆中 以一瓢消磨半生 蓋實得品茶三昧 可以羽翼 桑苧翁之所不及 卽謂先生爲茶中董狐可也)

윗글은 명대 문인들, 즉 산림에 은거하면서 일상을 검소하고 고상하게 살았던 문인의 일상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 초해 선생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심주와 뜻이 통했던 지기(知己)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초해 선생은 참된 은군자(隱君子)였다는 심주의 평가는 그 자신도 초해 선생처럼 청산과 흰 구름 등, 속기가 없는 자연을 좋아했던 인물로, 초해 선생과 같은 이상을 품었다고 확신하였다. 늘 차를 즐기면서 참(眞)을 지향했던 문인들에게 차와 자연은 동일한 격물(格物)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심주나 초해 선생 같은 은둔한 군자는 붉은 칠을 한 대문과 화려하게 치장한 권문세가나 구중궁궐에 나갈 뜻이 없었다. 다만 차 한 잔과 자연이 이들의 곁을 지켜 주는 참된 보좌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차는 사람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기에 오랜 역사 속에서 간단없이 이어졌던 것일까. 차를 마시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답답함과 피로감을 비갠 가을 하늘처럼 상쾌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한편 심주는 초해 선생은 차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라서 그가 즐기는 차의 고상함은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陸羽)도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해 선생은 차의 참된 원리를 진실하게 기록하는 기록자라 평가한 것이니 이는 검박하고 고상한 차의 세계를 만끽한 명대의 은거 문인의 자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명대는 산차(散茶, 잎차)가 대세를 이뤘던 시대였다. 하지만 주원장이 단차 생산을 금지하는 조칙이 반포하기 이전엔 가루차, 즉 단차의 효능이 잎차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했다. 이런 사실은 주권(朱權, 1378~1448)의 〈다보(茶譜)〉에서 확인된다.

〈물지〉에 이르길 좋은 차를 마시면 사람이 잠을 적게 하는데, 이는 차의 실체다. 다만 차가 좋으면, 바로 효과가 난다. (이는 단차류인)가루 차를 마실 때 드러나며 만약 잎차를 끓인다면 (차의)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物志云 飮眞茶 令人少眠 此是實事 但茶佳乃效 且須末茶飮之 如葉烹者 不效也)

실제 주원장의 단차 금지령을 반포한 것은 대략 1391년경이다. 단차 금지령이 반포된 이후에도 차의 효능이 좋은 것은 단차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잎차를 선호하는 흐름에 따라 잎차의 제다법이 점차 개량되고 솥에서 직접 덖어내는 초청법(抄靑法)이 일반화되면서 우수한 잎차가 명차의 반열에 오르는 시대를 구가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㊷

1.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흔히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한다.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갖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을 헤매던 사람이 강가에 다다랐다. 강 건너편을 보니 넓은 들에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했다. 그곳은 갑자기 튀어나와 뒷덜미를 무는 맹수도 없고, 슬금슬금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독충도 없고, 손과 발을 할퀴는 독초도 없는 곳이다.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려면 강을 건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강물은 깊고 차갑고 거세게 소용돌이 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배를 만들고, 거친 물살을 타는 지혜를 갖추고,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한다."

① 맹수와 독충은 삶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② 지혜로운 뱃사공은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다.
③ 튼튼한 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④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⑤ 깊고 세찬 강물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비유한 것이다.

해설 :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피안(彼岸), 즉 열반을 말한다. 열반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로 윤회가 다하여 다시 태어남이 없음을 말한다. 단순한 죽음은 다시 태어남으로 연결되기에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으로 불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다음에 나타난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훌륭한 미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흐(Gogh)의 그림도 어린아이의 붓장난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하고 정교하게 연결된 세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허공에 선을 그어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①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아니고, 나뉜 적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다.
②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③ 둘로 구분 지어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은 끝없는 분열과 투쟁을 초래한다.
④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 쪽을 우선시해야한다.
⑤ 상대의 신념과 주장을 악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한다.

해설 :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불교격언과 연결되는 가르침이다. 불교도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편적인 진리와 합리적인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인식)을 중요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서 어느 한 쪽만을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3. '나를 비운다'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를 비워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② 나를 버려야 하므로 나는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③ 어딘가 버려야 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버리면 행복하다.
④ 나는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다.
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아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 무아설의 문제이다. 불교에서 무아란 여러 가지 작용들의 구성물인 '나'는 고통이고 덧없으며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허무주의적인 이론이 아니라 개인의 아집을 떠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나의 욕망이나 주관을 부여하여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연기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②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항상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
③ 나도 남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④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한다.
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기쁜 삶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노력한다.

해설 : 인간은 자연환경과 연기적 관계를 맺음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인간의 삶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의 개발이라는 말은 자연환경을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으로 문제에서는 자연환경을 무시한 개발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답 : 1. ④ 2. ④ 3. ⑤ 4.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